

고흥군, 녹동항 드론쇼 전국적 흥행 열풍 예고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4월 13일 첫 개막한 녹동항 드론쇼 화려한 1500대 스페셜 공연에 1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흥의 또 다른 매력과 활기 넘치는 밤거리 풍경을 소개해 전국적인 이목과 집중을 받으면서 흥행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녹동항 드론쇼는 드론중심도시 고흥의 위상 제고와 고흥관광 및 지역상권 경제활성화는 물론 더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고흥의 대표 야간 볼거리 관광 특화 기획상품으로 내놓은 상설 공연이다.

고흥군에서 펼쳐지는 녹동항 드론쇼는 혁신적인 군집 비행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더해진 新드론 콘텐츠 개발 드론 전문기업이 맡아 진행하고 있고, 매주 새롭고 다양한 주제 콘텐츠와 연출 음악으로 마법같은 공중 조형 예술작품을 안정성 있게 선보이고 있어 관람객들의 만족

도가 매우 높다.

녹동항 드론쇼는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마다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 삼아 드론 700대 규모 이상으로 펼쳐진다.

공연 시간은 하절기(4~9월)는 저녁 9시, 동절기(10~11월)는 저녁 8시 단 한 차례 진행되며, 공연은 특정한 장소 없이 녹동항 어디서든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군은 특별한 시기인 추석과 설 명절, 고흥유자축제, 연말연시 기간 중에 1천대 이상 특별 공연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은 매 주말 드론쇼 공연 외에도 지역 가수가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 불꽃쇼, 상용 드론 비행시연, 야간 해상 레이저쇼, 소록대교 경관 조명쇼 등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녹동항 일원에 먹거리, 즐길거리 체류형 콘텐츠 확대를 고흥 야간관광의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민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4월 13일 첫 개막한 녹동항 드론쇼 화려한 1500대 스페셜 공연에 1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흥의 또 다른 매력과 활기 넘치는 밤거리 풍경을 소개해 전국적인 이목과 집중을 받으면서 흥행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보성, 스마트 귀농 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보성군은 최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연합뉴스와 농협이 주최하는 2024 '스마트 귀농 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 귀농 귀촌 유치에 나섰다 밝혔다.

군은 상담 전문관을 운영해 귀농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에게 귀농 귀촌과 관련된 종합 정보와 맞춤형 지원정책 및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했다.

특히, 귀농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아두면 유익한 지원사업 Q&A'를 제공했으며, 지원사업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한 2024년 '정책 홍보 책자'를 상담에 활용했다.

또한, 보성군이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한 점과 쌀, 감자, 키위, 두릅, 쪽파, 녹차, 등 농산물 재배 최적지인 점을 강조해 귀농 정책을 적극적 상담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귀농 귀촌지원센터(☎061-852-2282) 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91)로 문의하면 된다. /강종수 기자

완도군 보길면서 여섯째 아이 출생 신우철 군수 직접 찾아가 축하 인사

신우철 완도군수가 최근 여섯째 아이를 출산한 보길면 백도리의 김찬성, 김희정 씨 부부를 만나 축하 인사를 전했다.

보길면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고 있는 김찬성, 김희정 씨 부부는 지난 3월 24일 여섯째 아이인 김강현 군을 품에 안았다.

신 군수는 부부를 만나 "강현 군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신 군수는 부부에게 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과 출생 축하 선물 꾸러미를 직접 전달했다.

군에서는 여섯째 아이를 출산한 김 씨 부부에게 출산 장려금 2,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신우철 군수와 군 관계자 외에도 완도군체육회와 완도군청년

연합회, 농협 완도군지부,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완도 소안수협,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보길면 번영회 등 기관·사회단체에서 함께 했다.

아울러 농협 완도군지부에서는 전기발송을,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생활용품 꾸러미를, 행복복지재단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쌀을 후원했으며, 이의 단체에서는 격려금을 전달했다.

완도군은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500만 원을, 둘째 아는 1천만 원, 셋째 아는 1천300만 원, 넷째 아는 1천500만 원, 다섯째 아는 2천만 원, 여섯째 아는 2천1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돌맞이 축하금, 장난감 도서관 회비 감면 등 다자녀 출생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문수 기자

장흥군, 유·청소년 스포츠 생활관 개관

장흥군은 최근 '유·청소년 스포츠 생활관' 새단장을 마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장흥군 체육 관계자들과 장흥FC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유·청소년 스포츠 생활관은 기존 정남진 리조트 건물에 공용 샤워실, 세탁실 등 편의시설을 늘리고 냉난

방기 교체 등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완성됐다.

생활관은 장흥FC 합숙소로 위탁 운영된다.

유·청소년 스포츠 생활관은 부산 면 심천구장 내 위치해 선수들에게 최상의 훈련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오는 2025년 개원 예정인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시 선수들

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FC 축구 꿈나무들이 좋은 환경에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지역 스포츠 인재들이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인 체육회장은 "장흥FC 선수들과 학부모님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백두연 기자

진도,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진도군이 최근 진도군청 회의실에서 '진도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진도군 먹거리와 관계시장의 현황 분석을 통해 기획생산, 접근성, 안전관리, 운영관리 등 먹거리 체계 구축에 따른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실 문제 반영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농가 소득 안정과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진도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8대 추진전략과 20개의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진도군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재평 기자

군은 맞춤형 먹거리 생산·공급,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군민을 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진도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은 소규모 농어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보현 기자

해남군, 청년 주거비 지원

해남군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2024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의 자체 사업으로써 전액 군비로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가구중위소득 150%이하,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총 50명을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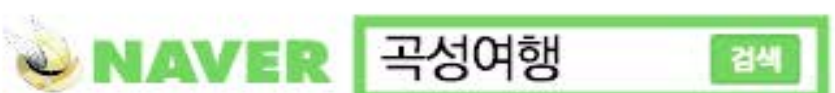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윤보현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자연관광도전 최우수관광상 수상작